

봉시를 통해 얻는 기쁨

글_이미경(사천시보건소 결핵실)

엇그제 결핵실로 발령 받은 것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업무를 너무도 몰라 타 시군 담당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조금 알겠다 싶을 즈음 TB도우미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 7월이었습니다.

사업초기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9년 2월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니, 저는 그보다 7개월 먼저 시작한 셈입니다. 사업설명서 참석저조, 신고율 낮음, 순응도 또한 떨어지는, 그야말로 시범사업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참 좋은 사업이란 생각이 들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B도우미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기쁨과 보람으로 보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 도말양성 확인요망' 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환자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알아본 끝에 보호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분의 주민번호(50세)를 알고 있어서 병원에 문의하니 상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름대로는 환자관리상 어쩔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확인 결과 도말양성이 맞았습니다. 병원담당자와 통화 후 전화를 드렸는데, 사천시보건소 결핵 담당 ○○○라 신분을 정확히 말씀드렸더니 응해주셨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너무나 놀란 것은 대상자는 07년 2월부터 2년 넘게 1차 항결핵제를 투시고 계셨습니다.

이런걸 TB도우미사업이 필요하구나,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상자와 통화하고 다시 병원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 씨 왜 신고를 안하셨느냐"고 이야기를 하니, 07년 발견 시 신고를 하였기에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있어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

다. 전 즉시 결핵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고 내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했습니까. 사업 자체가 민간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우선으로 “앞으로 신고 잘 부탁드립니다”고 말씀드리고 병원과의 접촉은 여기서 접어야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환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TB도우미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진료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마산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환자는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날 마산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셨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1차 내성이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환자분은 다니던 병원에 가서 따져야겠다며 흥분하셨을 정도였습니다. 환자분을 설득해 상황은 면했지만, 만약 제가 그분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그 심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환자분은 3일 후 마산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치료를 잘 받고 계신답니다.

저희 경남도에서는 특수사업으로 전출환자를 완치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바로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시며, 이 사업이 더 빨리 시행되었더라면, 또 담당자를 만났더라면 결핵을 가진 채 2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켰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산병원의 환자관리와 직원들의 친절에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나중에 퇴원하면 TB도우미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니 기회를 달라는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지만 이분의 경우 TB도우미 사업이 없었더라면 치료 시작까지 3년이 되도록 치료도 되지 않는 1차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겠지요? 아울러 계속 전염을 시키셨을 겁니다. 택시운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근 3년 동안 운전을 하시면서 밀폐된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 전염을 시켰을까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저는 관리대상자가 완치되면 항상 “고생많으셨어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오히려 자신들이 더 고맙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끄끙 앓는 병을 관리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건네드립니다. †